

미국영어 코퍼스자료에 근거한 “think of”와 “think about”의 분석*

서 경 희**

차 례

1. 들어가기
2. 자료 및 방법론
3. 가설
4. 분석
 - 4.1 한정지시사와의 공기현상
 - 4.2 순간성과 지속성
 - 4.3 공기하는 다른 표현들
5. 맺음말

Think of me,
think of me fondly
when we've said goodbye.
Remember me
once in a while.
Please promise me you'll try.....
But if you can still remember
Stop and think of me
Think of all the things we've shared and seen.
Don't think about the things which might have been.
Think of me, think of me waking, silent and resigned
Imagine me trying too hard to put you from my mind

* 본 논문은 2007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대 영어대학 영어학과 교수

Recall those days, look back on all those times
Think of the things we'll never do
 There will never be a day, when I won't think of you.
 (Sara Brightman, *Phantom of the Opera*중에서)

1. 들어가기

영어 동사구 “think of”와 “think about”은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Biber et al. 1999) 또한 위에 소개된 바와 같이 시나 노래의 가사에서도 자주 쓰임이 관찰된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이러한 동사 표현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이 두 동사 표현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형태가 다르면 그 의미나 기능이 다르다는 가설을 바탕으로(Bolinger 1977)¹⁾, 본 연구에서는 현재 쓰이는 미국 구어와 문어 코퍼스 자료를 바탕으로 이 두 동사구 표현사이의 의미적, 기능적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두 동사구 표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영어 동사구 “think of”와 “think about”은 대체로 큰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부분의 사전들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즉 공히 “to have an opinion about,” “to consider”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설명하거나(*Oxford Advance Learner's Dictionary*) 또는 한 동사의 어휘정의를 다른 동사에 속하는 어휘목록으로 부

1) Bolinger(1977: 4-5)는 변형생성문법에 대한 비판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는데 이는 순전한 동의어(true synonymy)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 근거로서 영어에서 body와 one을 취하는 8개의 비한정대명사를 조사한 결과(예: anybody vs. anyone 등)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대조를 보이는 쌍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단지 너무 차이가 미묘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변이(free variation)로 간주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하였다: Always one's first impulse, on encountering two highly similar things, is to ignore their differences in order to get them into a system of relationships where they can be stored, retrieved, and otherwise made manageable. The sin consists in stopping there (1977: 5).

연설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실제로 두 동사 표현의 차이점은 너무 미묘하여서 때때로 거의 호환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상황에서 “what do you think of/about your new school?”라는 발화는 두 동사 표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도 큰 의미 차이 없이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think about”은 “think of”에 비하여 좀 더 사려 깊은 사고 혹은 의도적인 사고 과정을 요하는 경우에 선호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다음에 소개되는 예문 (1)과 같은 경우에 “think about” 대신 “think of”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겠다.

(1) Don't even think about it. (아예 그럴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에서는 “think of”와 “think about”이 각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쓰임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think about”에 관한 정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각하게 고려하다”(to consider seriously before making a decision)라고 정의하고 그 예문으로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2) “Dad, will you buy me a new bike?”

“I don't know; I will have to think about it”

하지만 두 번째 정의로서는 “think of”의 어휘목록에 제시된 두 항목과 같고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두 동사표현이 서로 교체하여 쓰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두 동사표현의 사전적 정의를 비교하기 위하여 “think of”의 어휘목록 중 첫 두 항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능하긴 하지만 아직 공고하게 결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다(“to have formed a possible but not firmly settled plan for”).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We're thinking of going to France for our holidays, but we haven't decided for certain yet.” 둘째,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갖다(“to have as an opinion

about”). 그 예는 다음의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 “When do you think of/about the government's latest offer to the teachers?”

기존 문법책중의 하나인 Quirk et al.(1985: 710)에서는 전치사 “on”과 “about”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 공히 주제를 나타내는 “on the subject of”와 “concerning”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자는 후자에 비해서 더 계획적이고 공식적인 언어소통--예를 들면 강의나 공적인 연설 등--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about”과 “of”에 대한 의미적 차이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of”가 “about”보다는 좀 더 문학적이고 문어적인 맥락에서 선호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전치사들이 “think”와 같이 쓰일 때의 차이점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즉 “He thought about/of the problem”라는 예에서 “think about”은 “그 문제에 대해서 숙고했다”(He pondered/considered the problem)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반면에 “think of”는 “그 문제를 떠올렸다”(He brought the problem to his mind)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은 또한 코퍼스에 근거하여 영어 동사구가 사용역(register)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연구한 Biber et al.(1999: 417)과 일치한다. 즉 “think of”가 “think about”에 비해 문학작품에 더 많이 사용되고 또한 학술적인 산문(academic writing)에서는 “think about”은 거의 안 쓰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think of”가 “think about”보다 더 문학적이고 공식적인 맥락에서 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ink of”와 “think about”의 차이점에 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고(cf. 심 2006), 코퍼스자료에 의거한 Reppen & Simpson(2002)에서는 두 동사표현이 주로 목적어로 취하는 지시어의 종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용례색인(concordance line)을 비교 연구하여 간단한 언급을 하고 있을 뿐이다. 즉 “think of”와 “think about”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something”이나 “nothing,” 또는 특정한 지시대상이 없는 “it”와 같은 비한정 지시어(indefinite reference) 등을 주로 취하는 반면 후자는 대개 선행 맥락에 특정한 지시대상이 있는 “it”나 “that” 등과 같은 한정 지시어(definite reference)등과 쓰인다는 것이다. Reppen & Simpson에서는 두 동사표현의 의미적 기능적 차이점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으나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think of”는 주로 특정대상이

없이 순간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낼 때 주로 쓰이고 “think about”은 구체적 대상에 대한 사고에 쓰인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think of”와 “think about”에 대하여 영어교육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본 결과 두 가지 동사 표현의 쓰임새에 관한 차이점을 묻는 학습자들의 질문에 대한 원어민들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hink of”는 “상상하다, 떠올리다”를 의미하고 “think about”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한테 전념하여 심사숙고할 때 쓰인다는 것이다:²⁾

(3) Mary mentioned to me about her trip to Hawaii and she asked me if I am interested. I am thinking about it.

(4) When Mary mentioned to me about her trip to Hawaii, I thought of the beautiful beaches and tropical sun.

예문 (3)과 (4)의 경우 “of” 와 “about”을 바꿔 쓰면 비문이 되거나 적어도 어색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3)의 경우 “I’m considering it”(심사숙고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4)의 경우 “하와이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바닷가와 태양의 이미지를 떠올렸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think of”는 “bring to mind,” “call to mind,” “come up with” 등의 의미를 지니며 특정한 이유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할 수 있고 “think about”의 경우 심사숙고하거나 좀 더 신중하고 지속적인 형태의 사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think about”은 “think of”보다는 좀 더 사고의 시간이 길어질 때 자주 쓰이고 “think of”는 찰나적으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think about”이 “think of”에 비해 어떤 대상에 더 몰두하고 있을 때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에서 그러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5) A: We have tried to solve this problem but could not come up with a solution. Can you suggest something?

2) www.bbc.co.uk

B: Well, I can't suggest anything off-hand. I will think about it and if I think of something, I will let you know.³⁾

B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아무것도 제안할 수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다. 만약 뭔가가 생각이 떠오르면 알려주겠다.” 이 경우 역시 “about”과 “of”를 바꿔 쓴다면 원래의 의도를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think about”은 “think of”에 비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고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think about”은 “계속적인”이고 “지속적인” 양태(aspect)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6) I've been thinking of my first boyfriend all day.

(7) I've been thinking about my first boyfriend all day.

두 문장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전자는 일종의 습관적 행위로서 남자친구 생각이 금세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의식적으로 남자친구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계속적 의미인 미완료형(imperfective)이라는 것이다 (www.wordwizard.com).

셋째, 각각의 동사가 표현하는 사건의 실현가능성을 비교해볼 때, “think about”는 “think of”에 비해서 좀 더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을 강조할 때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hink about”은 계획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면 그 미묘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8) I am thinking about changing a job.

(9) I am thinking of changing a job.

(8)은 화자가 직업의 전환과 관련되는 문제점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비해서 (9)는 직업을 바꿔볼까 하는 것이 지금 한 순

3) www.usingenglish.com/forum/ask-teacher

간 하나의 선택으로 떠올랐다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다. 따라서 “think about” 은 더 실현성이 큰 동작을 의미할 때 선호될 수 있고 이는 “think about”이 부정문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현상과도 부합된다. 즉 “don’t even think about calling him”라는 문장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할 때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think of”와 “think about”은 둘 다 “어떤 일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think about”이 쓰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고의 과정이 더 신중할 때 쓰이는 “think about”의 목적어가 표현하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think of가 쓰인 경우보다 더 높다고 여겨지므로 (예를 들면 화자는 청자가 그 사람에게 전화하려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부정문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think about”이 “think of”보다 더 의도성이 강한 사건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of”와 “about”의 미묘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www.englishforums.com).

(10) I thought of going on holiday last weekend but then I changed my mind.

(11) I thought about going on holiday last weekend but then I changed my mind.

전자는 휴일에 외출하는 일이 잠시 마음에 스쳐지나가는 하나의 가능성임을 의미하며 후자는 그 생각에 더 많이 사로잡혀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think of”와 “think about”이 상호 교체되어 쓰일 수 없는 경우와는 달리 “think of”와 “think about”의 차이점이 단지 미묘한 스타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음이 언급되고 있다(www.englishforums.com).

(12) I was just thinking of the wonderful trip we had.

(13) I was just thinking about the wonderful trip we had.

전자의 경우는 여행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화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여행을 즐겼다는 느낌을 전달하고 후자의 경우는 특정한 감정적 동요 없이 여행 중 일어났던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한다는 것이다(www.englishforums.com). 따라서 “think of”는 “think about”에 비해 감정적 뉘앙스가 있는 경우에 더 선호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일 경우 “think of”와 “think about”은 별 의미 차이 없이 상호 교체되어 쓰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에 제시된 설명들을 종합해보면 “think of”는 “to imagine, to create an idea,” “to remember (immediately),” “to consider from certain point of view” 등으로 정의될 수 있겠고 “think about”은 “to consider (carefully),” “to try to solve the problem” 등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의미상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실제 미국영어코퍼스 자료를 바탕으로 “think of”와 “think about”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공기하는 양식(co-occurring patterns)의 발생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 (1) 미국영어에서 “think of”와 “think about”의 쓰임새나 분포도면에서 구어와 문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2) “think of”와 “think about”이 취하는 목적어는 정보구조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3) “think of”와 “think about”이 동사의 양태(aspect)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4) “think of”와 “think about”이 나타나는 어맥(co-text)이나 문맥(context)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 (5) “think of”와 “think about”의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자료 및 방법론

본 논문은 코퍼스분석에 의거한 논문으로서 그 주요 자료로서 두 가지 코퍼스를 사용하였다: 구어코퍼스로서는 Michigan Corpus of Academic Spoken English(MICASE)를 사용하였고 문어코퍼스로서는 Brown Corpus를 사용하였다. MICASE는 미시간 대학(앤나버 캠퍼스)에서 수집된 구어자료로서, 대학에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중심으로 녹음된 약 1백 7십만 정도의 단어수로(190시간) 구성된 방대한 자료이며 많은 수의 참석자와 다양한 개별 말사례(speech-event) 종류를 망라하고 있다. 교실에서 녹음된 자료로는 대형강의, 소형강의, 소그룹 토론, 소그룹 실험실, 세미나, 학생들의 발표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교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녹음된 자료로는 상담 그룹, 개별지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학구적 담화(academic speech)의 언어를 문법, 어휘, 기능, 목적 등의 측면에서 연구하는 데 유용하며 서로 다른 전공들 간에 혹은 서로 다른 수업들 간에 어떤 특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코퍼스라고 할 수 있다. MICASE는 www.las.umich.edu/eli/micase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어자료인 Brown Corpus는 1960년대에 브라운대학에서 수집된 자료로서 그 당시 미국에서 출판된 영어산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총 1,010,312 단어로 구성되어있다.⁴⁾ Brown Corpus에는 각각 2000여 단어로 구성된 500개의 텍스트 샘플로 되어 있으며 정보성 산문 9가지와 창의성 산문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주된 코퍼스 외에도 영어팝송에 나타난 가사나 옛튼게 된 발화 또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두 동사구의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였다. 첫째, think of와 think about의 발생빈도를 각각의 코퍼스에서 조사하였다.⁵⁾ 둘째, 두 가지의 코퍼스에서 발견된 토큰(token)은 우선 각 동사구가 취하는 목적어가 한정적 지시사인지 비한정적지시사인지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셋째,

4) 본 연구에서는 http://www.lex Tutor.ca/concordancers/concord_e.html에서 지원가능한 1,000,000 단어에 해당하는 코퍼스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5) think of 와 think about의 현재형, 과거형, 진행형까지 포함하여 발생빈도를 조사하였다.

두 동사구가 표현하는 사건의 양태(aspect)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동사구가 완료진행형에서 사용되는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think of”와 “think about”이 실제 담화 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기 위하여 각각의 동사구가 포함된 어맥이나 문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3. 가설

“think of”와 “think about”가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의사소통 목적으로 쓰인다면 이 두 동사구가 주로 나타나는 어휘맥락(lexical contexts)이나 구조맥락(syntactic contexts)이 같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이 두 동사구는 서로 다른 연어(collocations)구성이나 서로 다른 공기양식(co-occurring patterns)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연어 분석은 개별 어휘 항목의 문법적, 의미적 사용 양식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Sinclair 1991). 즉 비슷한 뜻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어휘나 문법구조 들일지라도 그 쓰임새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다른 단어들과의 연합 양식이나 특정 구조에 대한 선호경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오 2004).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앞에서 논의된 관찰을 바탕으로 세워진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think about”은 구어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think of”는 문어에서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2. “think about”은 “think of”보다 더 구체적인 사고를 요할 때 쓰인다. 따라서 “think of”의 목적어로는 비한정지시어가 사용될 확률이 더 클 것이다. 또한 “think about”의 목적어로는 선행 맥락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는 한정지시어 혹은 구정보(given information)가 주로 사용될 것이다.
3. “think about”은 “think of”보다는 더 지속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데에 쓰이므로 지속적인 사건(durative event)의 성격을 가질 것이고 “think of”

는 순간적인 사건(punctual event)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양태를 나타내는 완료진행형은 “think of”보다는 “think about”과 더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4. “think of”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생각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고 “think about”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사고에 쓰이므로 앞 뒤 문맥에 그와 일관성을 보이는 표현이 나타날 것이다.

4. 분석

“think of”와 “think about”의 전반적인 분포현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어자료인 MICASE에서는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개별 말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think of”는 361토큰이 발견되었고 “think about”은 513 토큰이 발견되었다. Brown Corpus에서는 “think of”는 189개가 관찰되었고 “think about”은 46개가 관찰되었다.⁶⁾ 다음 표는 구어와 문어자료에 나타난 두 동사구의 빈도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구어와 문어자료에서의 빈도수

	MICASE(구어)	Brown(문어)
think of	361(41.3%)	189(80.4%)
think about	513(58.7%)	46(19.6%)
총계	874(100%)	235(100%)

위의 표를 보면 구어자료에서는 “think about”의 빈도수가 조금 높았고 문어자료에서는 “think of”의 빈도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어자료가 다소 격식적인 강의로 구성된 학구적 담화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상대화로 구성된 구어자료에서는 “think about”의 빈도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think of”가 문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또한 구어보다는 문

6) 두 동사구의 현재형, 과거형, 진행형, 완료형까지 포함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어에 더 많이 사용된다는 Biber et al.(1999)의 관찰과 상응한다고 하겠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코퍼스분석을 통하여 두 동사 표현이 각각 선호하는 언어구성이나 공기양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고 두 동사구의 쓰임새에서의 차이점을 위에서 제시한 가설을 중심으로 규명할 것이다.

4.1 한정지시사와의 공기현상

동사구 “think of”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다”인 반면 “think about”은 “곰곰이 구체적으로 생각하다”이므로 “think of”는 비한정 지시어(something, someone, somebody, anything, anyone, nobody, no one 등)들을 더 많이 취할 것이다. 한편 “think about”은 구체적 대상에 대한 사고를 종종 의미하므로 한정 지시어인 “that/those”, “it/them”을 목적어로 더 많이 취할 것이다. 또한 정보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관사의 사용면에서도 “think of”는 부정관사와 그리고 “think about”은 정관사를 취하는 목적어와 더 많이 쓰일 것이다. 즉 “think of”는 신정보(new information)를 목적어로 취하는 반면 “think about”은 구정보(given information)를 목적어로 취할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코퍼스에서 공기양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한정지시어와 공기양식

	think of		think about	
	미시간	브라운	미시간	브라운
it(them)	59	6	96	9
that(those)	19	4	45	5
the	36	37	55	5
총계	161(42.8%)		215(57.2%)	

표 3: 비한정지시어와 공기양식

	think of		think about	
	미시간	브라운	미시간	브라운
a(an)	34	11	7	0
something등	15	9	3	2
총계	69(85.2%)		12(14.8%)	

표 2에서 보인바와 같이 한정지시어를 목적어로 취하는 빈도수를 각각 동사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think about”이 “think of”에 비해서 그 빈도수가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57.2% 대 42.8%). 비한정지시어와의 공기양식은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think of”는 “think about”에 비하여 부정관사나 “someone,” “anyone” 등과 같은 비한정 지시어와 약 6배가량 더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다음은 “think of”가 목적어로서 비한정 지시어를 취한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

(14) (MICASE: Art Museum Tour)

let’s think for just a minute, and what do we think of, when we think of a garden? just off the top of your head. flowers. flowers. okay and here we see flowers... anything else maybe lots of ...

(15) (MICASE: Graduate Student Research Interview 1)

S1: it’s just um, taken away not as much emphasized on, if the reader could really make uh, i mean if the writer could really make the reader feel what they saying.

S2: okay, uh can you think of another way of saying that? can you think of another word, a single word that would do that?

S1: taken away by the writer’s ability

위의 예문에서 보인 것처럼 think of는 a garden과 같은 비한정 지시어를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15)의 예문에 나타난 것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 “another way of saying that” 이나 “another word, a single word” 와 같은 지시어를 목적으로 취하면서 특히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나 단어를 떠올릴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think of”의 의미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15)는 작가가 원하는 표현을 그 자리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맥락에서 쓰인 것을 고려한다면 “think about”보다는 “think of”가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즉 “Nobody could think of anything to say”라는 문장은 “뭐라고 말할 지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이러한 맥락에서도 또한 “think about”은 적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다음 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특정한 대상을 생각해내는 맥락에서 “think of”가 “a thing to do”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행맥락에서도 “try something- anything”이라는 표현은 선행맥락과 궤를 같이 하여 불특정하고 덜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6) (Brown.txt at position 2356638)

Believe me! There are many, many things to do. Find out what you like to do most and really give it a whirl. If you can't think of a thing to do, try something- anything. Maybe you will surprise yourself. True! We are not all great artists. I, frankly can't draw a straight line.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think of”는 주로 비한정 지시어를 목적으로 취하는 빈도수가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think of”가 한정 지시어를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도 거의 43%에 해당하므로 문맥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음은 “think of”가 목적으로 한정지시사인 it를 택한 경우이다. Brown Corpus에서는 “think of”가 한정지시사인 it를 택한 경우가 190개 토큰 중에서 단 5개 뿐이었고 이들 모두가 “think of it as...”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였다. 즉 아래 예문에서 “생활필수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

급하는 행위는 동정이라기 보다는 정의의 행동으로 여겨야한다”라는 표현에서 “think of X as Y”구문은 “X를 Y의 특질을 지녔다고 여긴다”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관점에서 고려한다”는 “think of”의 의미와 부합된다.

(17) (Brown.txt at position 5654102)

“The soil is common to all men When we give the necessities of life to the poor, we restore to them what is already theirs. We should think of it more as an act of justice than compassion.” Because community not severalty of property is the law of nature no man can assert an absolutely unalterable.

다음 예문은 “regard X as Y”의 구문이 먼저 나오고 후행맥락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think of X as Y”구문이 쓰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회중이 교회를 우리의 교회로 생각하는 한 혹은 목사가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는 한...”이란 문장이다.

(18) (Brown.txt at position 2851677)

As long as the congregation regards the church as “our” church, or the minister thinks of it as “my” church, just so long the ecumenical movement will make no significant advance. There must first be a deeper sense that the church belongs not to us but to Christ,

마찬가지로 미시간 코퍼스에서 “think of X as Y”의 구문이 13개 발견되었다. 다음은 “think of”가 한정대명사인 “them”을 목적어로 취한 경우인데 as가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도 “them”이 지칭하는 대상이 뚜렷하게 정의되어 있다가보다는 후행맥락에서 “다람쥐종처럼 생긴 것들”(sort of squirrelly things)이라고 모호하게 불리는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형태는 한정대명사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비한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9) (MICASE: Race and Evolution lectures)

the ones you see in the zoo all the time cause they do so well they're Lemur catta, they don't even look like look like prim--you wouldn't think of 'em as primates at all they look like um, sort of squirrelly things. and uh, le--they include prosimians, monkeys, apes, and us. that's the order primates, our family, is the family hominidae

한편 “think about”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구문이 브라운 코퍼스에서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미시간 코퍼스의 경우는 두 개만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포도는 “think of”와 “think about”의 언어현상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think about X as Y”의 구문의 예이다:

(20) (MICASE: Christianity and the Modern Family Colloquium)

it seems to me that the churches have failed to visualize family, uh not as some fixed part of some past uh divinely established order but rather as, a new creation. in other words that, that we really should think about family as a redemptive possibility, which criticizes systems of family and society that oppress, women children the aged and the poor.

예문 (20)에서 “family”가 특정 가족을 지칭한다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가족을 지칭하는 비한정 지시어로 쓰인 점이 “think about X as Y”의 구문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위의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hink about”이 비한정 대명사를 취하는 빈도수는 아주 낮았지만 그 중에서 비한정 대명사 중의 하나인 “something”--“anything” 등을 포함--을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가 미시간 코퍼스에서는 3건 관찰되었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1) (MICASE: Provost Public Lecture)

that leads itself then to be valuable, for us, and finally um, Michigan as

an institution that i deeply believe is exciting precisely because it is willing to construe itself and reconstrue itself, alternatively quite frequently, that it is a place where people are ready and waiting to get, beyond the comfort zone, of their habitual ways of thinking, to try to be with someone different to try to think about something different, and indeed maybe even to change a habit,

위의 예문에서는 미시간대학이 하나의 기관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서로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한다는 표현에서 “think about something different”가 쓰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think about”의 목적어로서 비한정 대명사인 “something”이 쓰이고 있으나 “something” 다음에 내용을 한정하는 형용사인 “different”가 쓰임으로서 어느 정도 지시어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 소개되는 예문들은 “think about”이 한정적 지시어와 쓰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22) (MICASE: Black Media student presentation)

S3: okay. and i just i just want us to discuss this like, why are you guys in the middle and why are some of you feel that, it is problematic today? anybody?

SU-f: just wait a minute, let me think about it.

(23) (MICASE: Black Media Student Presentations)

S12: you know, BAPS [SS: BAPS] horrible [SU-f: horrid] and that was Halle Berry she is a very, [SU-f: horrid] well-known actress, [SU-f: Bulworth] she's struck the mainstream, but, at the same time she had, [SU-f: (i mean) aren't_ that's that's] BAPS, Jada Pinkett had Woo

SU-f: whoa

S1: well, if you think about it in terms of, Academy Awards, you can put three names under, four names under the black people who've won Academy Awards for acting, four out of, [S12: four] almost a hundred years of Oscar awards.

(22)과 (23)을 살펴보면 “it”이 지시하는 대상은 각각 선행 맥락에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23)에서는 “in terms of”라는 부사구로 의미가 한정되면서 더욱 구체적인 사고를 요하는 맥락임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다음에 나오는 예문 (24)에서도 “think about”이 여러 번 쓰이고 있는데 한정 지시어를 각각 목적어로 취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즉 목적어로서 지시대상이 분명한-예를 들면 “that, the power structure of the television industry, Steven Spielberg's company, Zanuck, Michael Eisner”-지시대명사나 고유명사가 쓰이고 있다:

(24) (MICASE: Black Media Student Presentations)

S1: i think the question that's being, here that's that's at issue here is what, realm of choice is truly available. [S2: mhm] and when you think about that you have to think about the power structure of the television industry in Hollywood. now. how many of you can name, a black person who owns a movie studio?

S4: (xx) and i'm a huge movie person.

S1: well think about Steven Spielberg's company, think about Zanuck think about Michael Eisner who owns Disney A-B-C, and, that includes Miramax and Touchstone and Miramax's head is Harvey Weinstein,...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hink of”는 목적어로서 비한정 지시어를 취하는 경향이 강하고 “think about”은 한정 지시어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think of”는 (특정한 이유 없이) 머릿속에 잠시 떠오르는 생각을 나타내는 데에 선호되고 “think about”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4.2 순간성과 지속성

“think of”는 “떠올리다, 상상하다, 어떤 생각이 불쑥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다(something keeps popping unforbidden into someone’s mind)”의 의미가 있으므로 보다 순간적인 사건(punctual event)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think about”은 “곰곰이 구체적으로 생각하다”의 의미가 있으므로 좀 더 지속적인 사건(durative event)이라고 볼 수 있겠다(cf. Vendler 1977).⁷⁾ 따라서 두 동사구가 선호하는 양태(aspect)에서 차이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양태를 표현하는 데에 쓰이는 현재완료 진행형(혹은 과거완료 진행형)은 “think of”보다는 “think about”과 더 연합하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체 코퍼스를 분석해 본 결과 “think about”과는 9개의 완료진행형이 나타났고 “think of”와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작은 수의 토큰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think of”와 현재/과거 완료 진행형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는 현상은 두 동사의 의미차이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think about”이 완료진행형에 쓰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25)(MICASE: biology lecture)

this is an important issue, and something hopefully you’ve been thinking

7) 동사가 지닌 내재적인 어휘양태에 근거하여 Vendler는 동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activity, accomplishment, achievement(punctual), state) 그 중 [+duration]의 자질을 가진 것은 activity, accomplishment, state가 해당되고 [-duration]의 자질을 가진 것은 소위 punctual verbs라고 할 수 있는 achievement verbs가 해당된다. Vendler에 따르면 state verbs 외의 동사들은 일단 진행형을 취할 수 있으나 punctual verbs의 경우는 진행형을 취하면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예문 1) 아니면 동작의 개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예문 2):

(1) He is nodding his head in agreement. (그는 동의의 표시로 머리를 끄덕이고 있다)

(2) Joe is realizing his mistake. (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에 근거하여 think of은 비교적 순간성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고 think about은 지속성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out this past week because i sort of challenged you, at the end of last week's discussion to think about, how could you design a better experiment,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birth control pill usage and cancer, if there was in fact a relationship how could you unequivocally show one way or another, whether there was a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so you've hopefully been thinking about this, and, one of the things that you might have been thinking about is doing some experiments.

(25)에서는 “think about”이 완료진행형에서 세 번 연달아 쓰이고 있다. 즉 지난 주부터 내내 심사숙고해보라고 이미 과제로 부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맥락에서는 순간적인 양태를 지닌 사건보다는 지속적인 양태를 지닌 사건을 나타내는 “think about”이 더 적합할 것이다. 다음의 예문에서도 화자가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한 결정은 늘 원하던 것이었고 또한 계속 생각해오던 것이었음을 전달하는 맥락에서 “think about”이 완료진행형에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MICASE: Graduate Student Research Interview 1)

S1: well um... what uh, what prompted you to, come to graduate school?

S2: um, it's something i, i... kinda always wanted to do, um or had been thinking about and then sciences, um my degree is in biology and environmental studies

다음 (27)에서 (30)까지의 예문에서도 완료형으로 쓰인 “think about”이 지속성을 보여주는 다른 표현들과 공기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27) (MICASE: Graduate Education Advising)

S2: okay Jeff, why don't uh, try to start here by, bringing us up to date on, what you've been thinking about since our last conversations.

(28) (MICASE: Multicultural Issues in Education Student Presentations)

S9: Speaker information restricted

S10: yeah i don't know i was just_ i've, just been thinking about that this week a lot.

(29) (MICASE: Chemical Engineering Group Project Meeting)

S3: well we didn't even take pressure into consideration we we- we went up here, [S2: to, materials] and took like an average one.

S1: well let's figure out pressure. i, i've been thinking about pressure all week (especially,) thinking that, he's gonna be like, what about pressure? you guys are just talking about temperature.

(30) (MICASE: Artificial Intelligence Dissertation Defense)

how they would differ between different examples. so, i- i am not ignoring this problem, but i was, i've been thinking about that problem for quite some time and have not yet come up with a good way to quantitatively, measure,

위의 예문들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think about”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지속성을 나타내는 부사들(since our last conversations, this week a lot, all week, for quite some time)과 같이 쓰여서 어느 정도 지속성을 요하는 사고라는 의미와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블루마운틴 카드(bluemountain card)에 나오는 구절 또한 “think about”은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 있는 생각을 전제로 할 때 쓰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카드의 구절은 어떤 사람에 대한 순간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연속적인 생각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1) (www.bluemountain.com)

Gina, Just when you think you're alone, some lets you they're thinking about you.

다음의 예문은 미국인들의 여름휴가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가 얼마나 다른지를 언급하는 맥락에서 “a single vacation”이 목적어일 경우엔 “think of”가 쓰였고 “many vacations”가 목적어일 경우에는 “think about”이 쓰임이 관찰된다. 이는 아마도 저자가 미국인들이 여름휴가에 쏟는 여력이나 관심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맥락에서 순간적이고 간단한 사고를 표현하는 “think of”와 일련의 지속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think about”을 대비시키므로서 미국인들이 과거에는 여름휴가에 기울였던 관심이 다소 미미했으나 현재에는 더 관심이 증대되고 증폭되었음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32) (Brown.txt at position 2190636)

only vacationing cost they can't either eliminate or pare down drastically by camping along the way. Where Americans used to think of a single vacation each summer, they now think about how many vacations they can have. Long weekends enable many to get away from home for three or four days several times a year.

순간적인 사건과 지속적인 사건의 대조는 다음의 팝송가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33) (Think of You, Amerie)⁸⁾

I can't stop thinking about what we once had together
I know the reason is that our love was meant forever
.....
I've never stopped lovin your kissin and huggin
I still think of us when I'm all alone.

8) <http://music.bugs.co.kr>

즉 첫 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일련의 일들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여 “think of”보다는 좀 더 어떤 생각-아마도 일련의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음을 표현하는 “think about”이 사용된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후행맥락에 나오는 가사에서 “나는 홀로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떠올린다”는 어떤 생각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think of”의 의미와 부합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think of”와 “think about”의 쓰임새의 차이점을 동사의 양태--순간성 사건(punctual event) 대 지속성 사건(durative event)--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순간성 사건이 진행형을 취할 때는 반복적인 행위나 어떤 행위의 시작을 묘사하는 데에 쓰인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cf. Vendeler 1977).⁹⁾ 즉 앞서 소개되었던 (6)과 (7)을 다시 살펴보면 “I’ve been thinking of my boyfriend all day”는 하루 종일 남자친구생각이 불쑥 불쑥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하는 반복적인 양태를 나타내는 사건을 표현하는 데 비하여 “I’ve been thinking about my boyfriend all day”는 지속적으로 내내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지속성이 강조된 표현이라고 하겠다.

4. 3 공기하는 다른 표현들

앞 선 논의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think about”은 지속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등과 공기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 장에서는 부사뿐만 아니라 선후행 맥락에 나타나는 다른 언어적 표현들이 두 동사표현과 공기하는 현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전체적인 발화의 주제나 상황맥락에 따라서 두 동사구 중 어떤 것이 선호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두 동사구의 의미차이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34) (MICASE: Art Museum Tour)

S1: what about the garden we’re looking at we’re going to go from here, to another piece that’s called Garden, a contemporary piece, but i’d like

9) 주 (7) 참조

you to compare the two concepts of gardens. let's think for just a minute, and what do we think of, when we think of a garden? just off the top of your head.

S5: flowers.

S1: flowers. okay and here we see flowers... anything else maybe lots of

S7: trees and animals

S1: trees, animals, so lots of, [SU-f: (xx)] flora and fauna the the n-world of nature.

S6: something secluded like, nature in the raw or something (that's)

위의 예문은 미술관 관람 중에 일어난 대화로서 “think of”가 쓰인 바로 이전 맥락에서 “잠시 생각해봅시다”(let's think for just a minute)라는 발화를 통해 화자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요하는 사고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지속적인 시간을 요하는 부사와 주로 쓰인 “think about”과 대조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4.2 참조). 후행맥락에서 “think of”가 두 번 쓰이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질문 후에 덧붙인 “just off the top of your head”(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채 즉시로)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머릿속에 단지 스쳐지나가는 생각’을 나타내는 “think of”의 의미와 일관성 있게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이 “think about”과 더불어 쓰인다면 어색할 것이다. 이 후에 대화자들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스쳐지나가는 이미지들을 하나씩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특히 S1의 대화에서 “we see flowers”는 “think of”의 의미인 “visualize”와 의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예문 또한 미술관 관람 중에 일어난 대화로서 예문 (35)에서 “when we think of that”이라는 문장의 주절을 보면 화자는 어떤 메시지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what messages and ideas come to mind when we think of that.”). 이는 “think of”가 시각적으로 잠시 떠오르는 생각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36)에서도 “visually”라는 부사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구 “think of”

와 일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What visually makes you think of that?”).

(35) (MICASE: Art Museum Tour)

S1:..... but what i wanted to do is go from the garden now sort of, to the garden gate so to speak, entering this idea of a door of a threshold, um, of beginnings and ends and sort of keep that idea of threshold in mind and and what, uh, what messages and *ideas come to mind* when we think of that. in this corner, we're looking, at, uh, pieces that come from the Senufo culture.

(36) (MICASE: Art Museum Tour)

S1: okay, that's another, uh, good deduction to make that i hadn't thought of. are there any, other, of_ others of you who see relationships with the things we, saw before?... i'm just thinking of the door that we_ i mean this obviously doesn't have a door but it definitely, is_ or I shouldn't say definitely is_ to me, it is an entrance. what makes you think that? what *visually*, makes you, think of that. let's s- sort of take it apart...

S5: the space in the middle.

다음 예문 (37)은 어떤 적절한 표현을 생각해내는 맥락인데 현장에서 즉시 어떤 사고를 요하는 경우에 “think of”가 쓰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방법이 생각나는지 또 한마디로 표현할 말이 생각나는지” 묻고 있는 맥락에서 “think of”가 사용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다’의 의미를 가진 “think of”는 예컨대 약속에 늦었을 경우 그럴듯한 이유를 바로 생각해내야 되는 맥락에서(예: “we'll have to think of a pretty good excuse for being late”는 문장) “think about”보다 더 적절하게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37) (MICASE: Intro to Poetry Office Hours)

S1: it's just um, taken away not as much emphasized on, if the reader could really make uh, i mean if the writer could really make the reader feel what they saying.

S2: okay, uh can you think of another way of saying that? can you think of another word, a single word that would do that?

S1: taken away by the writer's ability t-

이와는 대조적으로 “think about”이 쓰이는 맥락을 보면 앞서 부사와의 공기 현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시간을 요하는 사고나 구체적인 대상을 가진 사고가 요구되는 맥락에서 선호됨을 알 수 있다.

(38) (MICASE: Multicultural Issues in Education Student Presentations)
and i have all kinds of stories about that but it's funny cuz i try to think about this multicultural stuff in this class, and um, and i feel like, i'm really lucky because i've been exposed to a lotta things, in the past few years because i've travelled and because i've met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and um i don't know what i would be like if that hadn't happened to me. um, but at the same time, the more i think about it it's not, all these crazy, random stories that, that help me realize what's going on it's really, the people that i meet, that i care about and i m- i th- know i've mentioned this before, um so i'm not trying to sound too repetitive but um... but i think about the first year i was in Grenoble and i spent, most of the year with five American people, not with French people

즉 (38)의 경우 다문화에 관한 논점을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화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여행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이어지는 맥락에서 표현된 “여행할 때 일어났던 일련의 다양한 경험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the more I think about)이라는 표현은 지속

적이고 의식적인 사고를 전달하는 “think about”의 의미와 잘 부합된다고 여겨진다. 또한 그레노블에서 보냈던 1년을 회상하면서 그 때 있었던 일들을 상기하는 맥락 (I think about the first year I was in Grenoble...)에서도 “think about”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예문 (39) 또한 비슷한 논의가 될 수 있겠다.

(39) (MICASE: Multicultural Issues in Education Student Presentations)
 you can go on down and see they get gradually if you think about a concentric circle going out away from the person’s home, that’s what the life—space, questionnaire, looks at. **the pros** of using this questionnaire are that it’s easy it’s inexpensive, it’s the only tool that’s available for community dwelling elderly, and it does match with my theoretical definition, the cons are that, there’s questionable, criterion validity. what i wondered is, it’...

위의 예문을 보면 “think about” 후행맥락에서 사고의 대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pros and cons)를 하나씩 열거함으로써 “think about”이 심각한 사고과정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40) (MICASE: interview)

S2: ... i think... his responses are, to questions are getting, um... sort of... it sounds like they’re coming easier to him [S1: yeah] um he doesn’t have to... um... sorta stop and think about what he has to say [S1: mhm] um it seems to flow a little bit, better [S1: uhuh] um... i’m just trying to think back i took Spanish for four years in high school [S1: yeah] and, you know i’d certainly have to sit there, and think of what i wanted to say, and then think of how to translate it [S1: uhuh] and then say it [S1: uhuh] and it seems [S1: right] like, that process for him... is easier [S1: mhm] an— and faster now [S1: mhm... yeah] i mean an—

an— and i don't know if he's at the point where he just talks and it just comes out... in English, but

위의 예문은 제 이외국어로서 스페인어로 의사소통하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화자 자신의 유창성과 다른 사람의 유창성을 비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유창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질문에 대한 답이 외국어로 아주 쉽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은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고 제이외국어로 말이 바로 나온다고 묘사하고 있다(He doesn't have to stop and think about what he has to say). 한편 자신의 유창성이 떨어짐을 묘사하면서 자기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스페인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생각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적절한 말을 제이외국어로 떠올려야 하는 맥락에서는 “think of”가 쓰임에 주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음 예문 (41)에서도 “think of” 대신에 “think about”이 사용된다면 “아무 대답도 생각해 낼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41) (Brown.txt at position 6608380)

thinking over and over again of Kitti, her friends, her past, he left the bedroom. Who? He could think of no answer. Gilborn put on his coat again.

다음에 소개되는 예문(42)에서도 “think about”이 두 번 쓰이고 있는데 목적어로서 한정 지시어인 “it”를 취하고 있고 더구나 두 번째 “think about”의 후행 맥락에서는 “it's so obvious”라는 표현을 통해 의식적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내려진 결정임--“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아주 명백하다”--을 시사하고 있다.

(42) (MICASE: Graduate Student Research Interview 1)

S1: it's the kind of insight that could really affect your thinking through your whole career and [S2: i_ yeah] (things) that will, shift and perspective

S2: mhm. and i just_ i was thinking about it the other day. um, at Saint Lawrence i took a course on fluvial geology. [S1: uhuh] and it's how water moves thr- through the streams and...(중략)... i don't think anyone at school made the connection [S1: mhm] and i'm like you know it's just, you think about it and it's so obvious.

다음은 오페라의 유령에 나온 “think of me”라는 노래의 가사중의 일부인데 “think of”와 “think about”이 어떻게 쓰였는지 관찰할 수 있다.

(43) (“Think of Me,” Sara Brightman)¹⁰⁾

Think of me,
think of me fondly
when we've said goodbye.
Remember me
once in a while.
Please promise me you'll try.....
But if you can still remember
Stop and think of me
Think of all the things we've shared and seen.
Don't think about the things which might have been.
Think of me, think of me waking, silent and resigned
Imagine me trying too hard to put you from my mind
Recall those days, look back on all those times
Think of the things we'll never do
There will never be a day, when I won't think of you.

위의 노래 가사에서 “think of me”는 “우리가 이별한 순간에 나를 사랑스럽게 기억해주세요”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think of me fondly”는 거의

10) <http://music.bugs.co.kr>.

“remember me fondly”라고 바꿔 쓸 수 있겠고 이어지는 노래가사인 “remember me once in a while”에서도 또한 어쩌다 한 번 기억해달라는 의미가 “think of”의 의미와 일관성 있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think of me, think of me waking, silent and resigned”라는 가사에서도 또한 “깨어날 때마다 조용함에 몸을 내맡긴 채 나를 떠올려주세요”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 가사의 바로 다음 줄에 이어지는 가사인 “imagine me”는 다시 한번 바로 앞줄에 쓰인 “think of”가 머릿속에 떠올려 상상하는 것을 의미함을 확인시키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hink about”은 부정문에서 사용되었는데 바로 앞에 나온 “think of”가 쓰인 가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눴던 모든 일들을 떠올려보세요”(think of all the things we’ve shared and seen.)에서 “think of”는 다음 줄에서 부정형으로 표현된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요”(don’t think about the things which might have been.)에서 사용된 “think about”과 대조를 보이면서 화자가 더 감정을 실어서 말할 때 선호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5. 맺음말

코퍼스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think of”와 “think about”은 의미나 기능 상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두 동사구 공히 “어떤 일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코퍼스를 분석해본 결과 두 동사 표현이 각각 선호하는 언어구성이나 공기양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동사구의 의미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기여함을 살펴보았다. 즉 “think of”는 목적어로서 비교적 덜 구체적인 대상(예를 들면 비한정지시어)을 취하는 빈도수가 “think about”보다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think of”가 “think about”에 비해서 사고의 대상이 덜 구체적이고 주로 뚜렷한 이유 없이 머리 속에 스쳐지나가는 생각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됨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두 동사가 지닌 양태적 속성을 비교해본 결과 “think of”는 사고의 지

속성이나 심각성이 “think about”에 비해서 약하고 순간적인 사건을 묘사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즉 “think about”은 지속적 양태(durative aspect)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think of”는 순간적 양태(punctual aspect)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차이는 두 동사구가 완료진행형과 쓰이는 빈도수뿐 만 아니라 두 동사구가 쓰이는 전후 문맥을 살펴본 결과로 입증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에 의거하여 “think of”와 “think about”의 의미차이를 여러 가지 의미자질면에서 비교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의 구체성	think about >	think of
주어의 의도성	think about >	think of
사건의 지속성	think about >	think of
사건의 심각성	think about >	think of
사건이 실행될 가능성	think about >	think of

따라서 “think about”은 더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이며 더 지속적인 사고과정을 표현할 때 선호된다고 할 수 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think of”는 (아무런 계획이나 의도성없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고를 표현할 때 선호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사건의 실현 가능성면에서 본다면 “think about”으로 표현되는 사건은 심사숙고하거나 좀 더 신중하고 지속적인 형태의 사고를 의미하므로 특정한 이유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think of”에 비해서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코퍼스에 기초하여 흔히 쓰이는 동사구인 “think of”와 “think about”의 쓰임새를 살펴보았는데 이처럼 코퍼스에 기초한 연구결과는 교재개발 등에 활용된다면 학습자들이 배우게 될 내용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아가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직접 코퍼스와 상호작용하고 나아가 언어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코퍼스자료가 활용된 언어학습’(data-driven learning)(Johns 1991)을 학습현장에 접목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Johns는 “연구는 연구자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r]esearch is too important to be left to the researchers, 1991: 9)라고 주장하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언어탐정(language detectives, 1997: 101)이 되

어서 목표어(target language)에 관한 다양한 사실들을 실제 사용되는 언어를 통해서 스스로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다(cf. 오 2004, 조 2006). 이는 또한 Bernardini(2002)의 ‘코퍼스를 이용한 발견학습’(corpus-aided discovery learning)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학습자는 단지 코퍼스자료를 통해서 해당 언어 현상의 패턴을 관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것들에 대한 가설을 스스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된 방식처럼, 예를 들면 “A와 B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직접 ‘용례색인 코퍼스’(concordancing corpora)를 접하게 하여 특정어휘와의 연합양식이나 특정구조와의 선호양식을 스스로 찾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학습상황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인 용 문 헌

- 심경미.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think of* and *think about*” (화용론
세미나 기말논문 2006).
- 오선영. 「코퍼스와 영어교육」. 『외국어교육연구』 제 7집 (서울대학교 외국
어교육연구센터, 2004): 141-160.
- 조의연. 「용례적인 말뭉치를 활용한 영어 어휘 의미론 교육」. 『담화와 인
지』 13:3 (담화-인지 언어학회, 2006): 209-228.
- Biber, D. S. Johansson, G. Leech, S. Conrad & E. Finegan.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gman: London, 1999.
- Bernardini. S. “Systematising serendipity: proposals for large corpus
concordancing with language learner.” *Rethinking language pedagogy
from a corpus perspective: Papers from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aching and language corpora*. Ed. L. Burnard & T.
McEnery. Hamburg: Peter Lang. 2000. 183-190.
- Johns, T. “Should you be persuaded two samples of data-driven learning
materials.” *Classroom Concordancing*. Ed. T. Johns & Kings, P.
ELT Journal 4 (1991): 1-16
- Johns, T. “Contexts: the background, development and training of a
concordance-based CALL program.” *Teaching and language
corpora*. Ed. A. Wichmann, S. Fligelstone, T. McEnery & G.
Knowles. Longman: London, 1997. 100-115.
- Quirk, R. G. Sidney, G. Leech & J. Svartvik.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London, 1985.
- Sinclair, J. *Corpus, concordance, and collocation*. Oxford: Oxford UP, 1991.
- Vendler, Z.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P, 1967.
- Oxford Advance Learner’s Dictionary*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인터넷 사이트

www.las.umich.edu/eli/micase

http://www/lextutor.ca/concordancers/concord_e.html

www.englishforums.com

www.wordwizard.com

www.usingenglish.com/forum/ask-teacher

www.bbc.co.uk

www.bluemountain.com

<http://music.bugs.co.kr>

Abstract

A Corpus-Based Investigation of *think of* and *think about* in American English

Kyung-Hee Suh (HUFS)

The two verb phrases, *think of* and *think about*, have been generally regarded as interchangeable, and no serious attempt has been made to discover potential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verb phrases in terms of meaning and function in discourse context. The present study aims to present a corpus-based examination of *think of* and *think about*,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their use and distribution in spoken and written American English. An analysis of tokens from the Michigan Corpus and the Brown Corpus leads to the observation that *think of* and *think about* show different skewings in collocations and co-occurring patterns,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defining their meaning and function in discourse. A close examination of data reveals the following. First, *think of* is four times more frequent than *think about* in written discourse while *think about* is more frequent than *think of* in spoken discourse. Second, *think of* favors an indefinite reference as its object while *think about* favors a definite reference. Third, *think about* is used to mark a prolonged action, hence durative, whereas the action denoted by the expression 'think of' takes place instantly, hence punctual. Based on these observations, I propose that *think of* denotes an instant/spontaneous action such as the display of a fleeting thought whereas *think about* denotes a planned and prolonged action, which requires a more active thinking process than in the case of *think of*. As such, *think of* can be paraphrased as “imagine, remember, or

bring to one's mind" while *think about* can be paraphrased as "reflect upon or consider seriously."

Key Words: verb phrases, corpus, [in]definite reference, durative event, punctual event.